

논 단

■ 다문화 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사의 관계

정영조, 박지선, 윤정수, 김정숙, 나카지마 카즈오



■ 민족과 불평등 :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이양호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사의 관계



정 영 조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 보건복지대학원 박사과정)
(yung1617@hanmail.net)



박 지 선
(일본 료비개호연구소 연구원)
(lundy@hanmail.net)



윤 정 수
(일본 바이카이지대학 국제영어학과 교수)
(yoon589@hanmail.net)



김 정 숙
(경상남도청 국제통상과 주무관)
(jsuk1009@korea.kr)



나카지마 카즈오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 보건복지학부 교수)
(kazuo@fhw.oka-pu.ac.jp)

I. 서론

1990년대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현저히 증가해왔다. 통계청(2012)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전체 결혼건수 중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7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도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 전체 이혼건수 중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10.1%를 나타내고 있고 그 중 72.6%가 결혼이민여성 부부이다. 이는 결혼이민여성 부부가 결혼생활 속에서 축적된 갈등 및 부적응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부부인 경우 대다수가 중개업자의 소개를 통해 집단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혼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부부 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김민정 외 2006).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동법(同法)을 근거로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태조사와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등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족의 가족해체 및 이혼율은 여전히 감소할 기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국제결혼 부부의 높은 이혼율에 관해 학계의 관심도 집중되어 이들 부부관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민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을 뿐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그다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시도된 연구(최지영 2009; 정의정 외 2009; 이근무 외 2009; 엄명용 2010; 이은주 2010)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한국인 남편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검토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의 해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명확히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미트먼트 이론을 참고로 다문화 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부부간의 문제를 아내인 결혼이민여성의 관점에서만 다루었다면 남편인 한국인 남성의 입장에서 결혼생활 지속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커미트먼트 이론

커미트먼트 이론은 1960년대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커미트먼트가 조직생활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김병식 1997; 難波峰子 외 2009). 이러한 커미트먼트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및 태도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커미트먼트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태도적 관점과 행동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태도적 관점은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일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태도적 관점에 대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주목한 마

이어(Meyer 외 1993)의 커미트먼트 3요인 모형이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화한 모형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모형은 커미트먼트를 정서적 커미트먼트(affective commitment), 규범적 커미트먼트(normative commitment), 지속적 커미트먼트(continuance commitment)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행동적 관점은 구성원이 현재 소속된 조직에서 분리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이 조직에 남고자 하는 일관된 행동양식으로 정의된다(Mowday 외 1979).

이후 이러한 커미트먼트 이론은 결혼생활에도 응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존슨 외(Johnson 외 1999)는 개인적 커미트먼트(personal commitment), 도덕적 커미트먼트(moral commitment), 조직적 커미트먼트(structural commitment)의 3영역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아담스 외(Adams 외 1997)는 배우자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itment to spouse), 혼인제도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itment to marriage), 덮에 걸린 느낌(feeling of entrapment)의 3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두 연구에서는 커미트먼트의 하위 영역을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적 커미트먼트와 배우자에 대한 커미트먼트는 정서적 커미트먼트로, 도덕적 커미트먼트와 혼인제도에 대한 커미트먼트는 규범적 커미트먼트로, 조직적 커미트먼트와 덮에 걸린 느낌은 지속적 커미트먼트로 재정리할 수 있으며 커미트먼트를 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행동적 관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행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부부동반행동이란 부부간의 대화 및 여가, 가사 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Blood(1967)에 의하면 부부동반행동이 많을수록 부부생활의 만족감을 높일 뿐 아니라 부부의 공동성에도 긍정적인 관계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今江幸子 2003, 재인용).

이처럼 가족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요인인 커미트먼트는 그 내용에 따라 태도적 관점과 행동적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관점들을 각각 검토하고 있을 뿐 이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대한 원인변수인 커미트먼트의 태도 및 행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최근 들어 가족해체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혼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가족관계에 대한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단면 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이혼 여부를 살펴보는 것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백의 외 2009, 309).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결혼안정성, 결혼지속, 이혼의향, 결혼유지의사 등과 같은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해정 외(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결혼 질과 결혼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결혼기간과 배우자의 역할수행 평가 및 의사소통 기술이 결혼의 질을 좌우하고 나아가 결혼 안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규(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이혼의향에 주목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1/3이 이혼의향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진(2010)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유지의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출신국, 학력과 남편의 연령 및 직업이 관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에 대해 검토한 연구에서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였지만, 이혼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아 결혼생활에서의 불안정성이 심각하며 남편의 가정폭력, 성격차이 등을 이혼의 이유로 꼽아 한국인 남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김정순 2009, 90-98).

이처럼 종래의 연구들은 결혼이민여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남편인 한국인 남성의 입장에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단순응답화 하도록 하고 있어 가족관계 지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거론된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가족관계 지속의사’는 부부가 어려움에 직면해도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가족관계를 지속해 나가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는 배우자와 함께 가족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이하 태도커미트먼트)’와 ‘결혼생활 행동커미트먼트(이하 행동커미트먼트)’로 구성하였는데, ‘태도커미트먼트’는 배우자에 대한 심리 및 정서적 상태를 반영한 변수로 아내에 대한 애착 및 호의적 감정을 의미하는 ‘정서적 커미트먼트’, 아내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을 의미하는 ‘규범적 커미트먼트’, 이혼에 대한 손득(損得)을 의미하는 ‘지속적 커미트먼트’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행동커미트먼트’는 부부의 동방행동 등 반려성(伴侶性)을 반영한 변수로 정의할 수 있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A, B도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9개소(A도: 15개소, B도: 14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 885명(A도: 735명, B도: 150명)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0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하였고, 본 연구자 중 한 명이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책임자(이하 조사원)에게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본 조사에 동의한 센터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동의한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495명(회수율 55.9%, A도: 374명, B도: 121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2.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조사 내용은 남편의 기본적 속성(연령, 결혼지속기간, 결혼경로, 최종학력, 월수입), 아내인 결혼이민여성의 기본적 속성(연령, 국적, 최종학력)과 결혼생활 커미트먼트(태도 및 행동커미트먼트), 가족관계 지속의사로 구성하였다.

각 주요변수에 관해서는 정영조 외(2012)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관계 지속의사 척도는 총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점: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 '2점: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의 3점 척도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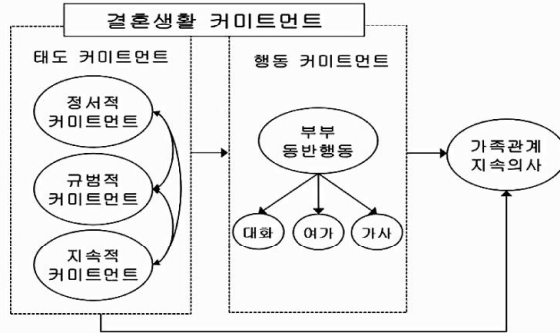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는 태도커미트먼트와 행동커미트먼트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도 커미트먼트는 '정서적 커미트먼트(4항목)', '규범적 커미트먼트(3항목)', '지속적 커미트먼트(3항목)'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제법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하였다. 행동커미트먼트는 '부부동반행동 측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화(4항목)', '여가(3항목)', '가사(3항목)'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그런 적이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의 3점 척도로 하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족관계 지속의사를 종속변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독립변수로 하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때,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

로 태도커미트먼트를 행동커미트먼트보다 앞선 요인으로 가정하여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태도커미트먼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동커미트먼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관한 연구모형



4. 분석방법

가족관계 지속의사(1요인 모형), 태도커미트먼트(3요인 사교모형), 행동커미트먼트(3요인 2차요인 모형) 각각에 대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요인구조 측면에서 본 구성개념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하였고 신뢰성에 대해서는 내적 적합성 측면에서 본 신뢰성을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모형의 수정지수를 참고로 수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각 측정척도의 요인구조모형 및 인과관계 모형에 대한 적합성은 적합도 판단지표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CFI는 0.90이상, RMSEA는 0.08미만이면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한다(田部井明美 2001, 182, 204).

통계분석에는 SPSS12.0J와 AMOS5.0을 사용하였다. 또한, 회수된 495명의 데이터 중 분석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응답한 407명(A도: 312명, B도: 95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1>과 같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43.6세(표

준편차 6.3, 범위 26~65세), 결혼지속기간은 평균 4년 6개월(표준편차 3.4, 범위 8개월~17년 8개월)이었다. 결혼경로는 '중개업자 소개'가 가장 많은 225명(5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친구 소개'가 61명(15.0%), '가족 및 친척 소개'가 42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225명(5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71명(17.5%), '대학 졸업'이 46명(1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월수입은 '100 - 200만원 미만'이 199명(48.9%)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다음으로 '200 - 300만원 미만'이 100명(24.7%), '100만원 미만'이 58명(14.3%)을 나타냈다.

아내의 평균 연령은 29.0세(표준편차 6.6, 범위 19~58세)였다. 국적은 '베트남'이 176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리핀'이 81명(19.9%), '중국'이 66명(16.2%)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34명(32.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107명(26.3%), '초등학교 졸업'이 68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응답분포 (n=407)

한국인 남편			아내(결혼이민여성)		
연령	평균 43.6세 표준편차 6.3, 범위 26~65세		연령	평균 29.0세 표준편차 6.6, 범위 19~58세	
결혼지속기간	평균 4년 6개월 표준편차 3.4, 범위 8개월~17년 8개월		국적	베트남	176 (43.3)
결혼경로	중개업자 소개	225 (55.3)		필리핀	81 (19.9)
	친구 소개	61 (15.0)		중국	66 (16.2)
	가족 및 친척 소개	42 (10.3)		캄보디아	25 (6.1)
	종교단체 소개	39 (9.6)		일본	23 (5.7)
	연애결혼	11 (2.7)		타이	10 (2.5)
	기타	29 (7.1)	인도네시아	7 (1.7)	
최종학력	미취학	2 (0.5)	몽골	7 (1.7)	
	초등학교 졸업	20 (4.9)	기타	12 (2.9)	
	중학교 졸업	71 (17.5)	최종학력	미취학	11 (2.7)
	고등학교 졸업	225 (55.3)		초등학교 졸업	68 (16.7)
	대학(2,3년제) 졸업	46 (11.3)		중학교 졸업	107 (26.3)
	대학교(4년제) 졸업	36 (8.8)		고등학교 졸업	134 (32.9)
대학원 졸업	7 (1.7)	대학(2년제) 졸업		41 (10.1)	
대학원 졸업	7 (1.7)	대학교(4년제) 졸업		38 (9.3)	
월수입	수입없음	12 (2.9)	대학원 졸업	8 (2.0)	
	100만원 미만	58 (14.3)	* 단위 : 명(%)		
	100-200만원 미만	199 (48.9)			
	200-300만원 미만	100 (24.7)			
	300-400만원 미만	28 (6.8)			
400만원 이상	10 (2.4)				

2. 주요 변수들의 응답분포 및 모형 적합도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2〉와 같다. 1요인 모형으로 가정하여 이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CFI가 1.000, RMSEA가 0.000으로 대체로 적절한 모형이라고 판

단되었다. 다만 이때 수정지수를 참고로 항목간(‘2. 아내와 협력하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가고 싶다’와 ‘4. 아내가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될 수 있는 한 내가 수발하고 싶다’) 상관관계를 인정하였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0.894였고 가족관계 지속의사의 합계 득점을 산출한 결과, 평균 5.3점(표준편차 1.8, 범위 0~12점)이었다.

〈표 2〉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대한 응답분포 (n=407)

※ 단위 : 명(%)

구 분	응답범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1. 아내가 부상이나 병환으로 수입이 없어도 스스로 노력해서 가정의 경제생활을 지탱해 가고 싶다	9 (2.2)	136 (33.4)	262 (64.4)
2. 아내와 협력하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가고 싶다	4 (1.0)	107 (26.3)	296 (72.7)
3. 아내와 함께 손자를 볼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다	8 (2.0)	113 (27.7)	286 (70.3)
4. 아내가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될 수 있는 한 내가 수발하고 싶다	8 (2.0)	130 (31.9)	269 (66.1)

태도커미트먼트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3〉과 같다. 3요인 사교모형으로 가정하고 이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CFI가 0.965, RMSEA가 0.084이었다. 다만 이때 수정지수를 참고로 항목간(‘3. 아내는 나의 정신적인 안식처이다’와 ‘4. 아내의 생각이나 기분을 언제까지라도 공유하고 싶다’) 상관관계를 인정하였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정서적 커미트먼트’가 0.927, ‘규범적 커미트먼트’가 0.825, ‘지속적 커미트먼트’가 0.754였다. 태도커미트먼트 하위 영역별 합계 득점을 산출한 결과, ‘정서적 커미트먼트’는 평균 6.7점(표준편차 2.8, 범위 0~15점), ‘규범적 커미트먼트’는 평균 6.5점(표준편차 3.1, 범위 0~12점), ‘지속적 커미트먼트’는 평균 6.7점(표준편차 2.6, 범위 0~12점)을 나타냈다.

〈표 3〉 태도커미트먼트에 대한 응답분포 (n=407)

※ 단위 : 명(%)

구 분	응답범주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제법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서적 커미트먼트 Affective commitment】				
1. 아내가 힘들 때에는 곁에서 지탱해 주고 싶다	2 (0.5)	51 (12.5)	122 (30.0)	232 (57.0)
2.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4 (1.0)	55 (13.5)	120 (29.5)	228 (56.0)
3. 아내는 나의 정신적인 안식처이다	9 (2.2)	67 (16.5)	161 (39.5)	170 (41.8)
4. 아내의 생각이나 기분을 언제까지라도 공유하고 싶다	9 (2.2)	64 (15.7)	161 (39.6)	173 (42.5)
【규범적 커미트먼트 Normative commitment】				
5. 아이에게 괴로운 느낌을 갖게 하고 싶지 않다	83 (20.4)	48 (11.8)	85 (20.9)	191 (46.9)
6. 가족의 분열은 피하고 싶다	78 (19.1)	41 (10.1)	83 (20.4)	205 (50.4)
7. 이혼은 부끄러운 것이다	113 (27.8)	91 (22.4)	74 (18.1)	129 (31.7)
【지속적 커미트먼트 Continuance commitment】				
8.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	146 (35.9)	92 (22.6)	98 (24.1)	71 (17.4)
9. 아내가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7 (11.5)	66 (16.2)	135 (33.2)	159 (39.1)
10.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46 (11.3)	54 (13.3)	136 (33.4)	171 (42.0)

행동커미트먼트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4>와 같다. 3요인 2차요인모형으로 가정하여 이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CFI가 0.978, RMSEA가 0.059로 통계학적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대화' 영역이 0.083, '여가' 영역이 0.082, '가사' 영역이 0.862로 항목 전체에서는 0.832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합계 득점을 산출한 결과, '대화'가 평균 5.4점(표준편차 2.0, 범위 0~8점), '여가'가 평균 1.7점(표준편차 1.5, 범위 0~6점), '가사'가 평균 3.1점(표준편차 1.7, 범위 0~6점), 전체 항목에서는 평균 10.2점(표준편차 3.9, 범위 0~20점)으로 나타났다.

<표 4> 행동커미트먼트에 대한 응답분포 (n=407)

* 단위 : 명(%)

구 분	응답범주		
	그런적이 없다	가끔있다	자주 있다
【대화 Conversation】			
1. 서로가 상대에게 고민거리를 상담한다	33 (8.1)	242 (59.5)	132 (32.4)
2. 서로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고 있다	18 (4.5)	213 (52.3)	176 (43.2)
3. 서로가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	22 (5.4)	206 (50.6)	179 (44.0)
4.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	20 (4.9)	200 (49.2)	187 (45.9)
【여가 Lesiure】			
5.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한다	136 (33.4)	229 (56.3)	42 (10.3)
6. 부부가 함께 연극이나 콘서트를 보러 간다	259 (63.7)	128 (31.4)	20 (4.9)
7.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	210 (51.6)	174 (42.7)	23 (5.7)
【가사 Housework】			
8. 부부가 협력해서 식사 후 정리를 한다	69 (17.0)	244 (60.0)	94 (23.0)
9. 부부가 협력해서 빨래를 한다	122 (30.0)	198 (48.6)	87 (21.4)
10. 부부가 협력해서 청소를 한다	61 (15.0)	246 (60.4)	100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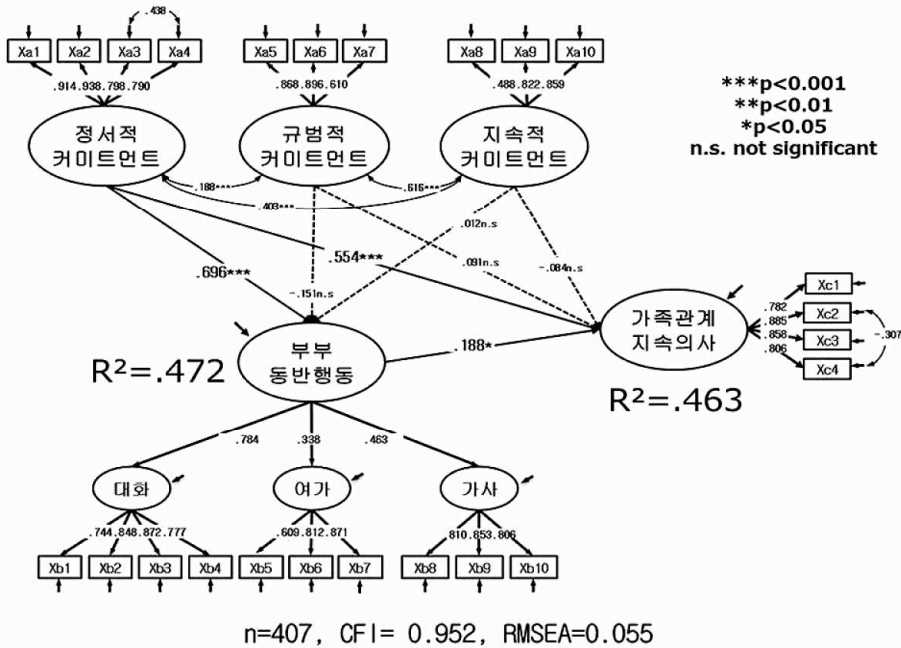
3.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사 연구모형 분석

다문화가족 남편의 가족관계 지속의사를 종속변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태도 및 행동커미트먼트)를 독립변수로 하는 인과관계 모형을 구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한 결과 CFI가 0.952, RMSEA가 0.055로 데이터에 적합하였고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변수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대해서는 정서적 커미트먼트($\beta = 0.554$)와 부부동반행동($\beta = 0.188$)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지속적 커미트먼트는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부동반행동에 대해서는 정서적 커미트먼트($\beta = 0.696$)만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고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지속적 커미트먼트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때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대한 설명률은 46.3%, 부부동반행동에 대한 설명률은 47.2%였다.

〈그림 2〉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사의 관계(표준화계수)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사의 연구모형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통계학적으로 가족관계 지속의사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태도커미트먼트를 구성하는 3요인 중에서 정서적 커미트먼트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행동커미트먼트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편이 아내와 가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깊을수록, 아내와 함께하는 행동이 많을수록 남편의 가족관계 지속의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심리학분야에서도 커미트먼트 요인 중 정서적 커미트먼트가 이직(離職)의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직(離職)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김미란 2007, 342-343; Meyer 외 1993; 難波峰子 외 2009).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커미트먼트 연구(宇都宮博 2005, 215-216)에서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의 4요인(존재의 전적수용 및 비대체성, 사회적 압력 및 무효력감, 영속성의 관념 및 집단지향, 물질적 의존 및 효율성)중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의미하는 '존재의 전적수용 및 비대체성' 요인이 결혼생활 지속의사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인 남편의 아내에 대한 애정은 결혼생활 지속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행동커미트먼트(부부동반행동)는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서적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사 사이에서 두 변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나 여가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화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연구(양순미 외 2005, 245; Rusbult 1980)에서도 부부가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은 결혼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 송지현 외(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지며 부부의 원만한 대화와 더불어 여가 및 가사 등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켜 양호한 부부관계 구축할 수 있어 이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결혼이민여성 부부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기술 프로그램 및 부부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부부의 행동커미트먼트 상승과 가족관계 지속의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규범적 및 지속적 커미트먼트는 가족관계 지속의사와 행동커미트먼트(부부동반행동)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규범적 커미트먼트는 아내와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규범적 커미트먼트가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남편의 경우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커미트먼트와 지속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두 변수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Meyer 외 2002)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難波峰子 외 2009, 21-22)가 혼재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후자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의사에 대한 규범적 커미트먼트의 영향에는 그 사회의 문화와 관습,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難波峰子 외 2009)을 고려한다면 한국인 남편의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무감인 규범적 요인은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속적 커미트먼트는 이혼 및 가족해체에 의한 손실과 이득을 의미하는데 자녀의 존재 등이 결혼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Stanley 외 1992) 알려졌고 조직심리학 연구에서도 조직에 대한 지속적 커미트먼트가 낮을수록 이직의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커미트먼트가 가족관계 지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정영조 외 2012, 362-363)와 같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여성 부부가 가족관계를 지속해 하고자 하는 의사를 단순히 본인의 손득(損得)이라는 계산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

지 않았나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가족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사의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커미트먼트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계 지속의사를 종속변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독립변수로 하는 인과관계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때 가족관계 지속의사에는 태도커미트먼트가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동커미트먼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계 지속의사에는 태도커미트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3요인 중 정서적 커미트먼트와 행동커미트먼트만이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부부 간의 동반 행동이 가족관계를 유지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계를 지속시키기 데 필요한 개입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종래의 연구에서도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부는 참가하지 않은 부부보다 커뮤니케이션 및 부부갈등 해결 기술과 부부의 동반행동이 향상되었고(유은희 외 2005, 15), 특히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만족에는 부부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는가에 대한 여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양순미 2005, 246).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부관계 향상과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부부교육, 부부캠프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단기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부간의 애정과 동반행동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정숙. 2012.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란. 2007. “간호사의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13(3), 335 - 344.
-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배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39(1), 159 - 193.
- 김병식. 1997. “근로자의 몰입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공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업연구』8, 189 - 218.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37(6), 77 - 95.
- 김오남 · 김경신 · 이정화. 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26(1), 69 - 84.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17(2), 75 - 105.
- 서해정 · 김형모.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36(2), 359 - 389.
- 소은덕.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현 · 이태영. 2010. “다문화 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30(2), 164 - 192.
- 양순미 · 정현숙. 2005.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11(3), 223 - 252.
- 엄명용. 20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학회지』14(4), 261 - 298.
- 유은희 · 김득성.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검증-PREP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23(1), 1 - 18.
- 이근무 · 김진숙. 2009.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neo-diaspora)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61(1), 135 - 162.
- 이은주. 2010.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문화적 민감성, 부부의사소통, 성역할 태도가 결

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남편 대상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26(4), 45 - 71.

- 정영조 · 박지선 · 김정숙 · 윤정수 · 나카지마 카즈오. 2012.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형성 지속의사의 관계.” 『국제고려학』14, 353 - 369.
- 정의정 · 하규수. 2009.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2), 222 - 231.
-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26, 225 - 254.
- 최현진.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유지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백의 · 박은주 · 박현정 · 박진. 2009.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61(3), 207 - 328.
- 통계청. 2012. “2011년 혼인 · 이혼 통계.”
- Adams, W. Jones. 1997. “The conceptualization of marital commitment: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5), 1177 - 1196.
- Meyer, Allen, C. Smith. 1993. “Commitment to organizations and occupations: Extension and test of a three component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4), 538 - 551.
- Meyer, Stanley, L. Herscovitch, and L. Topolnytsky. 2002.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A meta-analysis of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1), 20 - 52.
- Johnson, J. Caughlin, and T. Huston. 1999. “The tripartite nature of marital commitment: Personal, moral, and structural reasons to stay marri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160 - 177.
- Mowday, R. Steers, and L. Porter. 1979.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224 - 247.
- Rusbult, C.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2), 172 - 186.
- Stanley, H. Markman, 1992.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3), 595 - 608.
- 이마에 사치코(今江幸子). 2003. “夫婦關係におけるコミットメントの規定要因に関する研究-伴侶性, 夫婦満足感および投資モデルを中心に-.” 愛知大學大學院修士課程

論文.

- 우쓰노미야 히토시(宇都宮博). 2005. “女子青年における不安と両親の夫婦関係に関する認知-子どもの目に映る父親と母親の結婚生活コミットメント.” 『教育心理學研究』53, 209 - 219.
- 난바 미나코(難波峰子) · 야지마 유키(矢鳴裕樹) · 니노미야 카즈에(二宮一枝) · 다카이 켄이치(高井研一). 2009. “看護師の組織職務特性と組織コミットメントおよび離職意向の関連.” 『日保健科學學會誌』12(1), 16 - 24.
- 타베이 아케미(田部井明美). 2001. 『SPSS完全活用法共分散構造分析(Amos)によるアンケート處理』. 東京: 東京圖書.

● 투고일 : 2013. 6. 30 / 심사일 : 2013. 7. 20 / 게재확정일 : 2013. 7. 25